

성경과 고대 제국 <제 3 편> (8/27/2012)

<B.C 732 년> : 앓수르는 정복한 나라들중 가까운 나라들은 속주로 통합시켰지만, 지형적으로 먼 나라들은 자치를 허용했는데, 통치 방법은 각 나라의 민족주의를 말살시키기 위해 다량의 이주정책을 펼치며 혼혈족을 탄생시킨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앓수르의 감독아래 혼혈 사마리아인들로 혈통이 변질된다. 이에 반발한 북이스라엘 왕 므나헴과 다미섹의 왕 르신이 남유다와 함께 3 국 동맹을 맺어 앓수르에 대항하고자 한다. 이때 남유다 왕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친앓수르 정책을 펼친다. 한국의 남과 북이다. 같은 이스라엘인들끼리 서로 등을 돌리고 배신한다. 이에 북이스라엘과 다미섹은 남유다를 공격한다. 이에 남유다는 앓수르에 조공을 바치며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것이 앓수르에게 전쟁의 명분을 주는 계기가 된다. 앓수르의 빌레셋 3 세는 다른 나라 남자들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대거 이주를 시켜 혼혈족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때 탄생한 혼혈족이 <나쁜 사마리아인>이다. 북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무슨 죄인가. 나라가 약하면 내 누이와 내 딸들이 버림받는다. 조선시대에도 수많은 조선의 딸들이 중국으로 끌려갔다. 대표적인 사례가 <환향녀>이다. 인조 15 년(1637 년),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나라에게 무릎을 꿇고 투항을 한다. 굴욕의 대가로 세자와 함께 수만명의 조선의 딸들이 청나라로 끌려간다. 그리고 목숨을 부지해 조선으로 돌아온 그녀들은 <환향녀>라고 동네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는다. 그녀들이 무슨 잘못인가. 혼혈족 <사마리아>인들이 무슨 잘못인가. 분명한 인종차별이며, 배타적 민족주의다. 그래서 남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을 배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을 <나쁜 사마리아인>으로 죄악시하는 것인가. 참고로 현대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대단한 것도 아니다. 혈통을 따질 잘난 역사도 아니다. 누구나 여자가 유대교를 믿으면 자식들은 유대인이 된다. 인류 역사에 죄없는 씨앗이 어디 있을까...

<B.C. 612 년> : 바벨론이 앓수르의 수도 니네베(니느웨)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둔다. 앓수르가 하란까지 퇴각하나 610 년 바벨론이 하란까지 공격하자 포기한다.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B.C. 609 년> : 므깃도 전투 : 이때 이집트의 왕 바로느고가 앗수르의 잔여 병력을 규합해 바벨론과 전쟁을 치루려고 하남으로 진격하나, 남유다의 왕 요시아가 길을 가로막아 할수 없이 남유다와 전쟁을 치루고 여기서 남유다 왕 요시아는 전사한다. 이집트는 다시 전력을 모아 하란으로 진격하나 이미 하란은 바벨론의 수중에 들어간 뒤다.

<B.C 605 년> : 바벨론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마저 이기고 고대 제국의 주인이 된다. 그때까지 함락되지 않은 곳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 뿐이었다. 이집트를 점령한 바벨론은 남유다를 들러 다니엘을 포함한 천재 소년 4 명을 인질로 잡아가는 ‘제 1 차 바벨론 포로정책’을 실시하면서 바벨론을 섬기며 조공을 바치도록 하고 철수한다.

<B.C. 598 년> : 남유다가 강화조약을 잘 지키지 않자, 바벨론은 남유다를 다시 공격해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에스겔, 그리고 1 만여명의 기술자들을 바벨론으로 끌어난다. 이것이 ‘제 2 의 바벨론 포로’이다. 이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B.C. 605 ~562) 이다.

<B.C. 589 년> : 느부갓네살은 남유다가 이집트와 함께 바벨론에 대항하자 남유다 전체를 초토화시킴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다. 그와 동시에 이집트를 공격하여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게 응징함과 동시에 이집트의 무역권을 모두 차단한다. 이때 남유다 왕은 시드기야였고, 선지자는 예레미야였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 년을 해야함을 말해 주었으나 (대하 36 :20-21), 시드기야는 예루살렘 성안에서 18 개월을 버티며 공성전을 이어갔다. 이동안 바벨론은 여러번 항복을 요구하였으나, 남유다왕은 거절한다.

< B.C. 586 년> :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피의 보복이 이루어진다.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킴은 물론, 살아남은 사람 대부분은 바벨론으로 끌려 간다. 이를 ‘제 3 차 바벨론 포로’라고 한다. 남유다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체, 바벨론 감옥에 갇혀 죽는다. 두눈이 뽑히기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린 두 아들의 목이 달아나는 장면을 본 것이다 (왕하 25:7). 이때 끌려간 남유다의 백성들이 강가에서 ‘나라 잃은 설움’을 노래한 것이 1970 년대 유명디스코 그룹 ‘보니엠’의 ‘바벨론 강가에서’이다. 누구의 잘못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남유다 시드기야의 오만이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는 원인이다. 결국은 잔인한 바벨론 제국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 년만에 멸망한다.

<B.C.5 세기> : 페르시아의 바벨론 공성전 : 페르시아(이란)는 ‘황금의 제국’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지만 토지는 사막과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고, 날씨는 건조하고 일교차가 심한 척박한 땅이었다. 키루스 2 세 (B.C. 585 ~529, 성경에는 고레스 왕)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페르시아는 매우 가난한 나라였다. 키루스 왕이 메디아를 점령하고 리디아 (지금의 터키)를 공격해서 승리하고부터이다. 리디아는 사금으로 유명한 나라이고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는 엄청난 부자였다. 리디아 전쟁을 계기로 페르시아는 경제 부국이 된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2 세는 동쪽으로 정복전쟁을 치루어 에게 해에서 인도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 호시탐탐 바벨론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던 차에, 바벨론 왕궁은 종교문제로 심각한 내분이 발생한다. 바벨론 백성들은 벨사살 왕을 불신하게 되고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성을 공격할 때 바벨론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주면서 페르시아 군대를 환영한다. 바벨론은 저항 한번 못하고 멸망한다.